

[서평]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은 문학적
관점에서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임성철*

폴란드 출신의 고전 언어학자이자 역사 연구자인 마렉 비니아르치크(Marek Winiarczyk, 1947년생)¹⁾은 자신이 2011년에 독일어로 출간한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²⁾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그가 고대 유토피아 연구에 바친 25년이 넘는 기간의 연구 성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밝힌다(서문 XI). 그는 고전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플라톤의 유토피아 사상과 달리, 고대 유토피아 사상 연구에서 소외된 헬레니즘 시대(기원전 336년-30년)의 유토피아 관련 문헌 자료를 고찰함으로써 이 책에서 그간 관련 학계 연구의 공백(空白)을 메우고자 한다고 천명한다(서문 VII).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1) 그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https://pl.wikipedia.org/wiki/Marek_Winiarczyk[검색일자: 2015년 7월 23일]을 참조할 것.

2) Marek Winiarczyk, *Die Hellenistischen Utopien*(=Beiträge zur Altertumskunde; Bd. 293), Berlin: de Gruyter, 2011[전체 분량: 359쪽], ISBN: 978-3-11-026381-7(hard cover); ISBN: 978-3-11-026389-3(e-ISBN); ISSN: 1616-0452.

이 책은 저자 서문(VII-XII)에 이어 고대 유토피아 개념사 및 그 특징, 그리고 연구사에 드러난 주요 해석 관점과 그 문제점을 개관하는 1장(1-27쪽),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가 6인(테오폴로스의 <메로피스인의 땅>, 헤카타이오스의 <헬릭소이아 섬>, 오네시크리토스의 <무지카노스 땅>, 에우헤메로스의 <판카이아 섬>,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 알렉사르코스의 <우라노폴리스>)을 다루는 2-7장(29-218쪽), 그리고 결론(219-229쪽)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덧붙여 고대 유토피아적 모티브들을 ‘자연’, ‘인간적 특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구분한 고전 문헌 상세 목록(231-259쪽, 추가 265쪽), 유토피아 섬(Insel) 묘사 관련 고전 문헌 출처(261-263쪽)를 제시한 부록, 참고문헌과 색인(329-359쪽), 그리고 인용 그림 출처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적 사회를 위한 구상과 환상적·비현실적인 묘사로 이해되는 고대 유토피아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비니아르칙은 ‘협의적’ 의미(sensu stricto)에서의 정치적 유토피아(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와 ‘광의적’ 의미(sensu lato)에서의 유토피아적 모티브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³⁾. 그리고 “이상적 국가는 종종 멀리 떨어진 섬들에 세워진다. 이를 통해 이러한 국가는 완전한 자족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상적 질서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했던 모든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다.”(21쪽)라고 그는 고대 유토피아 사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비니아르칙은 유토피아를 종 특유의(gattungsspezifisch) 정의에 따르지 말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내용적’ 정의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니아르칙은 이와 같은 자신의 저술 의도에 중점을 두면서, 이 책에서 주제 관련 텍스트들의 분석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것들을 철학적, 종교학적, 역사적, 민속학적, 그리고 지리학적 맥락에서 논구한다. 그리고 그는 문학적 문헌뿐만 아니라 서간학적, 화폐학적(numismatisch),

3) 참조 Sven Günther의 書評: <http://www.sehepunkte.de/2012/01/20563.html> [검색일자: 2015년 7월 23일].

[서평]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은 문학적 관점에서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임성철

파피루스 연구학적, 고고학적 문헌을 다루며, 이 외에도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문헌과 연관된 유사한 부분을 이집트와 인도 문학과와의 연관성 가운데 확인한다(서문 X).

(a) 1장에서 비니아르칙은 고대 유토피아 개념의 의미 분석과 이에 대한 개념사 및 연구사에 대한 관련 학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분석과 그 연구 경향을 소개한 후, (b) 2장(29-44쪽)에서 그는 기원전 4세기의 역사학자 테오폴로스(Theopompus)가 전하는, 켈트족의 땅 저편에 위치한 ‘메로피스인의 땅’(meropis ge)에 대한 진기한 모습을 다룬다. 『필리피카(Philippika)』 8권의 <경이로운 것들>에 관한 부설(附設)에서 테오폴로스는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으로 해방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메로피스인들의 이상적인 삶을 언급하며, ‘전쟁의 도시’와 ‘경건의 도시’라는 상반된 사회적 특징을 묘사한다⁴⁾. 비니아르칙은 테오폴로스의 서술 목적이 정치적 유토피아에 있지 않고, 그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비상한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4) 참고. FGrHist 115F 75c 4-5: “두 도시는 그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크지만, 서로 유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 도시는 ‘전쟁의 도시’이고, 다른 도시는 ‘경건의 도시’라고 불린다. 경건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매우 부유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쟁거나 항소가 없이 땅에서 과실을 수확한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종자를 파종할 필요가 없다. 그[필자: 테오폴로스]가 말하기를, 그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늘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웃으면서 아주 흡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마감한다. 그들은 대단히 올바르게, 신들조차도 그들을 방문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전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호전적이며, 늘 곁에 무기를 소지하고, 항시 전쟁을 수행하며, 이웃을 지배하에 둔다. 그리고 이 도시만이 여러 수많은 민족들 위에 군림한다. 이 곳 주민들의 수는 이백만 명 정도이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질병에 걸려 사망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전쟁 중에 돌 혹은 나무로 서로 때려죽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들은 쇠로 된 것으로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너무 넘쳐나도록 풍부해, 금은 철보다 더 가치가 없다.”[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며, 이 번역문의 출처는 임성철, 「테오폴로스의 <메로피스인의 땅> (meropis ge) 서술 의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고찰」, 『서강인문논총』 제30집, 2011, 248-249쪽임].

주장한다.

(c) 이어지는 3장(45-71쪽)에서 비니아르치는 4세기 후반에 살았던 압테라 출신 헤카타이오스(Hekataios)가 묘사하는 경건한 민족인 히페르보레이인들이 사는 이상적인 공동체인 <헬릭소이아(Helixoia) 섬>⁵⁾을 분석한다. 그는 헤카타이오스를 고대철학 학파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W. Spoerri의 표현을 빌려 그를 “철학하는 문필가”(ein philosophierender Literat)로 부른다(49쪽). 비니아르치는 헤카타이오스를 정치적 이상주의자로 간주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묘사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변화무쌍한 우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d) 그리고 4장(73-115쪽)에서 비니아르치는 4세기 후반 혹은 3세기경에 살았던 아스티파라이아 출신의 오네시크리토스(Onesikritos)가 저술한 『알렉산드로스의 교육』에 나타난 인도의 무지카노스 땅에 대한 유토피아적 특징을 다룬다. 비니아르치는 이 책의 저술 목적이 오네시크리토스가 (1) 궁중 철학자와 문화전달자로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상화된 모습을 전달하고, (2) 동방과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인종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문학적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3) 원정기간 동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측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려 한다고 추정한다(93쪽). 비니아르치는 연구자들이 견유학파의 사상적 영향을 받

5) 참고. Diodoros, *Bibliothēke historike* II, 47. 1: “(……) 시칠리아와 크기가 같은 섬이 켈트족의 땅(Keltike) 너머, 오케아노스(Oceanos, Oceanus amalicus)에 위치하고 있다. [sc. 헬릭소이아(Helixoia) 혹은 엘릭소이아(Elixoia)라고 불리는] 이 섬은 북쪽으로 뻗어 있고, 이곳에는 히페르보레아 사람들이 산다. 그들은 북풍(Boreas)이 불어오는 지점 너머에 그들의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불린다. 이 섬은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자란다. 그리고 보통과는 다른 온화한 기후로 인해 일 년에 두 번 수확한다.”[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이 번역문의 출처는 임성철, 「헤카타이오스의 <히페르보레아>에 나타난 헬릭소이아 섬 묘사의 유토피아적 관점에 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16집, 2013, 145-146쪽임].

[서평]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은 문학적 관점에서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임성철

은 것으로 해석하는 무지카노스 땅에 대한 묘사를 ‘이상화된 역사 소설’로 이해한다. 결국 그는 오네시크리토스의 묘사를 통상적인 차원에서의 유토피아적 모티브를 갖는 여행 보고라고 간주한다.

(e) 계속되는 5장(117-180쪽)에서 비니아르칙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펠레폰네소스 남서쪽에 위치한 메세네(Messene)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에우헤메로스(Euhemeros)가 전하는 판카이아(Panchaia) 섬의 유토피아적 특징을 에우헤메로스주의와 연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한다⁶⁾. 무신론자인 에우헤메로스는 올림피아의 신들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간들이 사후(死後)에 신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그의 입장을 ‘에우헤메로스주의(Euhemerismus)’로 부른다. 에우헤메로스가 묘사하는 ‘판카이아’섬에 대한 유토피아적 요소들을 비니아르칙은 허구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그것을 ‘정치적-종교적 신통계보학(Theogonie)’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니아르칙은 판카이아 섬 묘사 내용이 담긴 디오도로스의 문헌 『신성한 역사(Hiera Anagraphe)』를 “신통계보학적 시가의 전통적 본보기(das traditionelle Schema der theogonischen Dichtung, 183쪽)”로 여기며, 디오도로스가 전해주는 보고를 에우헤메로스의 ‘신학적’ 견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판카이아 섬의 노예제도와 연관하여 비니아르칙은 『신성한 역사』가 이상적 사회질서를 드

6) 비니아르칙의 에우헤메로스에 관한 연구 성과로 참고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uhemeri Messenii reliquiae*, Stutgardiae et Lipsiae 1991 (Bibliotheca Teubneriana); “Antike Bezeichnungen der Gottlosigkeit und das Atheismus”, in: *Rheinisches Museum* 135, 1992, 216-225; “Ennius’ *Euhemerus sive Sacra historia*”, in: *Rheinisches Museum* 137, 1994, 274-291; “Templum Triphyliae Iovis na wyspie Panchaia w utworze *Hiera Anagraphe* Euhemera z Messeny”, in: *Eos* 86, 1999, 70-72;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ordnung in der *Hiera Anagraphe* des Euhemeros von Messene”, in: *Wiener Studien* 115, 2002, 127-144; *Euhemeros von Messene. Leben, Werk, und Nachwirkung*, Stuttgart-Leipzig 2002 (Beiträge zur Altertumskunde 157); “Euhemeryzm w świecie antycznym”, in: *Meander* 58, 2003, 281-303.

러낸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기원을 나타내기 위한 ‘삽화식 이야기’(Rahmenhandlung)라고 단언한다(145쪽). 그러한 이유로 인해 에우헤메로스는 금속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디오도로스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밝힌다. 더욱이 그는 플라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우헤메로스도 노예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이를 묘사하는 일을 생략한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E. Rohde 이후 연구자들은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를 ‘유토피아 소설’, ‘여행보고 테두리에서의 유토피아적-철학적 소설’, ‘허구적인 여행가의 이야기’, ‘여행문학의 장르’, ‘여행담’, ‘환상적인 여행 이야기’, ‘유토피아적 여행기’, ‘유토피아적 여행소설’, 그리고 ‘유토피아적 모험 소설’ 등으로 해석한다.

(f) 비니아르칙은 1997년에 독일 학술지 Rheinisches Museum 140호(128-153쪽)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 “Das Werk des Jambulos. Forschungsgeschichte(1550-1988) und Interpretationsversuch”를 이암블로스 부분에 그대로 삽입한다. 이 6장(181-203쪽)에서 그는 이암블로스(Iambulos)가 전하는 인도양에 위치한 지복한 섬인 <태양의 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연구자들은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을 공산 사회를 표방하는 정치적 유토피아, 스토아 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적 이상향, 유토피아 여행소설, 풍자 저술, 실제 여행을 기반으로 한 문학 서술, 그리고 현실 도피적 경향을 드러내는 문학적 서술이라고 칭하며, 이를 다각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이 스토아학파의 이상주의적 사회상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연구자들은 <태양의 섬>에 나타난 스토아적 현자(賢者)의 이상, 노예제도의 부재, 부녀자와 자녀의 공동 소유, ‘스토아적 필로포니아’(philoponia)와 비교되는 노동의 의무, 검소한 음식 문화,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 허용되는 자살과 안락사 등을 열거한다. 그러나 이암블로스의 이상적 사회상을 스토아 철학의 특징과 비교할 때 그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고대 철학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의 저술에 거의 대

[서평]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은 문학적 관점에서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임성철

부분 등장하는 것이며, 더욱이 헬레니즘 시대의 공동 유토피아로서 스토아 학파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고 비니아르칙은 주장한다. 그러한 까닭에 비니아르칙은 이암블로스를 스토아적 이상향의 창시자로 여기지 않고, 그의 묘사를 정치적 유토피아나 실제 여행에 대한 보고가 아닌 ‘유토피아적 여행소설’로 본다.

(g) 그리고 7장(205-218쪽)에서 비니아르칙은 카산드로스(Kassandros)의 동생 알렉사르코스(Alexarchos)가 기원전 360년에 아토스 반도에 있는 이스트모스(Isthmos)에 세운 이상적 도시로 알려진 우라노폴리스(Uranopolis)를 다룬다. 비니아르칙은 우라노폴리스의 정치적 질서 혹은 사회 구조를 증언하는 고대 문헌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 도시의 건립을 이상적 공동체의 실현으로 보지 않는다.

(h) 마지막 8장에서 비니아르칙은 헬레니즘 시대 유토피아 사상에 대한 자신의 앞선 2장에서 7장까지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시각에서 요약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장별로 언급한다.

*

앞서 언급한 비니아르칙의 저술 내용을 기반으로 필자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비니아르칙 자신이 기대하는 저술의 의도 그리고 필자가 판단하는⁷⁾ 이 책의 긍정적 측면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7) 참조.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 관련 국내 연구로는 필자의 다음 논문들을 확인할 것: 테오폴로스의 <메로피스인의 땅>(meropis ge) 서술 의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고찰, 『서강인문논총』 제30집, 2011, 239-265;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철학적 진실성과 그 현대적 의미, 『철학연구』 제43집, 2011, 117-156;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의 이해, 『철학탐구』 제33집, 2013, 141-167; 헤카타이오스의 <히페르보레아 사람들에 관하여>에 나타난 헬릭소이아 섬 묘사의 유토피아적 관점에 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16집, 2013, 140-161; 오네시크리토스의 무지카노스(Musikanos)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의 의미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20집,

한다.

(i) 비니아르칙이 자신의 저술을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라고 명명한 것은 그 저서에서 견유학과와 스토아학파의 이상국가론에 대한 서술 내용이 빠진 것을 감안할 때, 그가 - 비록 그가 서문에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는 있으나(서문 X) - 헬레니즘 시대 전반의 유토피아 사상을 다룬다고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비니아르칙은 향후 이를 광범위하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시노페 출신의 디오게네스의 폴리테이아(Politeia)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참조. 115쪽 각주 224번).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비니아르칙은 자신의 저서에 국가소설(Staatsroman), 즉 ‘정치적 유토피아’와 같은 협의적 의미에서의 유토피아 텍스트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비니아르칙이 광의적 의미에서의 유토피아적 모티브들에 따라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를 분석하기는 하나, 그는 이러한 모티브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연구의 주요점으로 삼지는 않는다.

(ii) 헬레니즘 시대 고대 작가들의 유토피아 서술 의도에 대한 비니아르칙의 연구 성과에 있어서 주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점은 그가 그러한 서술을 정치적인 동기에서 기인하는 더 나은 이상적 사회 구상이라는 측면에서의 문화적이며 사회적 맥락보다는 허구적이며 그 당시 독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여행담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비교. 26-27쪽, 220쪽)⁸⁾.

2015, 175-194.

- 8) 참조. J. Dreßler의 書評: M. Winiarczyk, *Die Hellenistischen Utopien*, Berlin 2011, in: <http://www.hsozkult.de/publicationreview/id/rezbuecher-17346H-Soz-u-Kult> [검색일자: 2015년 7월 23일]: Dreßler는 자신의 서평에서 비니아르칙이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동기와 유토피아적 동기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여행소설에서의 유토피아는 무엇이며, 이러한 동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더불어 그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묘사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동기는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연구에 있어서 이상화된 반대적 모습(Gegenbilder)으로서의 묘사를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서평]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은 문학적 관점에서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임성철

“유토피아라는 문학 장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토피아는 내용과 연관된 범주이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무엇인가 실제적이고 개연적인 형식으로서의 그들의 구상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 형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토피아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격리, 자족과 수고, 그리고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담고 있다.”(219쪽). 비록 비니아르칙이 “누군가가 새로운 양자택일적인 사회의 모습을 입안(立案)할 때, 그는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포함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23쪽)라고 언급하기는 하나, 비니아르칙은 이러한 언급을 바탕으로 한 고찰을 자신의 저술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정신사적’ 차원에 대한 그 당시의 유토피아적 묘사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비니아르칙의 설명은 늘 부족하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적 묘사에 대한 고찰은 그 당시 작가들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대중들의 삶의 여건을 고려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의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희랍 세계의 문화에는 낯선 것으로 그 당시에 등장한 체념주의와 ‘정적주의적(靜寂主義的)’ 정서를 극복하려는 차원, 즉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5장 에우헤메로스의 유토피아적 묘사는 이상적인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담은 최초의 국가 소설이며, 그의 유토피아 사상에는 엄격한 계급 체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삶의 영역과 정치적-문화적 삶의 영역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장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은 문학적 유희와 사회 혁명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그[필자: 이암블로스]의 유토피아적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인간 삶과 그 문화적 상황에 대해 숙고하도록 이끌며, 동시에 자아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로의 길을 제시한다. 즉 그의 철학적 진단에 의하면, 윤리적·도덕적 파이데이아가 결여된다면, 모든 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조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자족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한 상태가 달성된다고 밝힌다. 이는 이암블로스가 그 이전의 옛 그리스적 사고에 따라 행복을 자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그래서 이암블로스가 묘사하는 <태양의 섬>에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행복은 재화의 무절제한 축적, 향락의 최대치 달성, 권력의 방종이 아닌, 가능한 한 다방면의 자기 계발,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자연에 따르는 것’에 근거한 제한을 통해 달성된다”¹⁰⁾는 철학적 진실성을 담겨 있다고 필자는 본다.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아르칙은 자신의 저서 서문 마지막에서 Reinhold Bichler의 판단을 빌려, 사회적 변화에 대한 유토피아적 영향의 수용을 거부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토피아는 “사회적 변혁의 요소가 아니라, 지표이다(ein Indikator, nicht aber ein Faktor des gesellschaftlichen Wandels.)”[27쪽].

(iv) 비니아르칙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고대 역사, 고전 언어학뿐만 아니라 철학사, 정치사상사, 종교학 그리고 (근대 문학을 포함한)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다(서문 X-XI). 전체적으로 볼 때, 비니아르칙의 저서는 그의 고대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간 행해진 과장된 연구 관점과 고전 문헌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전개하는 관련 주제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에 비판적인 해석 관점을 제시하는 매우 인상적인 연구 성과이며, 특히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 견해를 분석하는 일에서 그가 보여준 신중하고 치밀한 연구 작업은 이 책의 긍정적인 장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 임성철,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철학적 진실성과 현대적 의미」, 『철학연구』 제43집, 2011, 117-118쪽.

10) 위의 논문 118쪽.

[서평]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사상은 문학적 관점에서의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임성철

(v)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마렉 비니아르치크이 평이한 어조와 유려(流麗)한 문체로 저술한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토피아 텍스트 연구로 유럽 학계에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유토피아 연구를 진행하는 고전학(Altertumswissenschaft)의 학문 분야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 서적이자 헬레니즘 시대 유토피아 연구의 기본서로 유럽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술서적이기에, 필자는 헬레니즘 시대 유토피아 사상에 관심을 두는 국내 연구자들과 일반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일독(一讀)을 권하고 싶다.

참고문헌

- 임성철, 「테오폴로스의 <메로피스인의 땅>(meropis ge) 서술 의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고찰」, 『서강인문논총』 제30집, 2011, 239-265.
- _____, 「이암블로스의 <태양의 섬>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철학적 진실성과 그 현대적 의미」, 『철학연구』 제43집, 2011, 117-156.
- _____, 「에우헤메로스의 <신성한 역사>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의 이해」, 『철학탐구』 제33집, 2013, 141-167.
- _____, 「헤카타이오스의 <히페르보레아 사람들에 관하여>에 나타난 헬릭소이아 섬 묘사의 유토피아적 관점에 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16집, 2013, 140-161.
- _____, 「오네시크리토스의 무지카노스(Musikanos)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묘사의 의미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20집, 2015, 175-194.
- Dreßler, J., 書評: M. Winiarczyk, *Die Hellenistischen Utopien*, Berlin 2011, in: <http://www.hsozkult.de/publicationreview/id/rezbuecher-17346H-Soz-u-Kult>[검색일자: 2015년 7월 23일].
- Günther, S., 書評: M. Winiarczyk, *Die Hellenistischen Utopien*, Berlin 2011, in: <http://www.sehepunkte.de/2012/01/20563.html>[검색일자: 2015년 7월 23일].
- https://pl.wikipedia.org/wiki/Marek_Winiarczyk[검색일자: 2015년 7월 23일].

임성철 E-mail: sungchul-rhim@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7월 23일
심 사 일	2015년 07월 30일
게재확정	2015년 08월 12일